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조 병 왕 지도교수
석사학위 청구논문

나무 표면 이미지를 통한
내적 치유공간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2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김 나 현

나무 표면 이미지를 통한
내적 치유공간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조 병 왕 지도교수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김 나 현

인 준 서

김나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4년 6월

심사위원장 임 상 빈 (인)

심사위원 박 영 근 (인)

심사위원 조 병 왕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작업한 ‘움벨트_’ 시리즈를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과 조형적 측면을 분석한 것이다. 현대 사회는 급하게 진행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환경오염, 인간소외 현상, 일자리 부족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로 인해 현대인들은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게 되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찾는 과정에 많은 시도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나 또한 평가받고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 본래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청력이 예민한 나는 정신적으로 약해질 때 도시를 가득 메운 생활 소음에 평소보다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소음 같은 외부 자극 요소가 적은 자연 공간을 찾았다. 이렇듯 자연은 내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다. 나는 이 치유의 기억을 바탕으로 회화적 방식을 통해 나만의 치유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나는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회피적 공간을 캔버스 화면 위에 그려낸다.

자연을 이용한 정신적, 신체적 치유 활동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자연환경은 휴식 공간이나 치유의 활동 프로그램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예술 분야에서는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왔다. 자연은 나에게 있어 심리적 치유의 공간이면서 정신적으로 항상 가까이 있다고 느끼는 친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를 근간으로 나만의 회화적 공간을 창조해내어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자연치유는 숲 지형을 활용하여 진행되며, 숲 환경은 나무들로 이루어져 있다. 나무는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로운 존재이기에 자연을 이루는 요소 중 하나인 나무를 주요 소재로 삼았다. 또한 숲을 현대 사회의 축소판으로 바라보며 나무를 현대인에 대입하였다. 나는 오랜 시간의 흔적이 담긴 나무 표면을 관찰하고, 촬영과 편집 등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캔버스 위에 유화로 그려냈다.

본 논문은 움벨트 시리즈 작품을 분석,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움벨트는 주변 환경을 의미하는 기호학 이론 용어이다. ‘벨트’는 세계이고 ‘움’은 둘러싼 이라는 뜻이다. ‘벨트’는 객관적인 세계였으나 ‘움’과 만나 변화한다. ‘움벨트’는 자기중심적 세계, 개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감각세계이다. 나 또한 나무 표면을 주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재창조했기에 이 용어가 내 작업의 제목으로 어울린다고 생각해 사용했다. 작품을 처음 봤을 때 한눈에 나무임을 알아볼 수 없도록 나무 표면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자르고 확대하여 추상적인 이미지를 만든다. 모든 작품이 한 가지 색상으로 그려졌으며 유화 물감이 완전히 마르고 난 뒤에 초기 단계에 올렸던 마스킹액을 최종적으로 걷어낸다. 그로 인해 화면 일부분에서 쌓아 올렸던 행위와 물감층이 원점으로 돌아가며 다시금 캔버스 고유의 면이 드러난다.

본 논문을 통하여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의 원인을 살펴보고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자연 요소를 이용한 나만의 정신적 치유공간으로서의 작품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여 회화적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작품 내용 연구	3
1)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심리적 효과	3
2) 자연에 대한 미술계의 가치관 변화	6
3) 미술치료와 고통의 예술적 승화	8
2. 작품 조형 연구	9
1) 나무 표면 이미지를 통한 내면 표현	9
2) 나무 이미지의 불확실성	12
3) 자연을 이용한 관념적 치유공간 표현	13
3. 작품 분석	16
III. 결론	29
참고문헌	31
ABSTRACT	34

작 품 목 차

[작품 1] 움벨트_윤슬, 117×50cm, oil on canvas, 2023

[작품 2] 움벨트_아지랑이, 117×50cm, oil on canvas, 2023

[작품 3] 움벨트_파도 1, 162.2×130.3cm, oil on canvas, 2023

[작품 4] 움벨트_파도 2, 162.2×130.3cm, oil on canvas, 2023

[작품 5] 움벨트_폭포, 145.5×112.1cm, oil on canvas, 2023

[작품 6] 움벨트_빙하, 145.5×112.1cm, oil on canvas, 2023

[작품 7] 움벨트_설산, 145.5×112.1cm, oil on canvas, 2023

도판 목차

[도판 1] 에디 로돌포 아파리시오, <The Ceiba Saved Me>, 309.9x218.4x14.6cm, cast rubber with ficus tree surface residues on found cloth, glazed stoneware, twine and wooden support, 2020

[도판 2] 이기봉, <Where You Stand D-1>, 186x186cm, acrylic and polyester fiber on canvas, 2022

[도판 3]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 <바닷가의 수도자>, 110x171.5cm, oil on canvas, 1809

[도판 4] <작품 2>의 스케치

[도판 5] <작품 2>의 마스킹 단계

I. 서론

인간은 삶의 과정에서 시대와 문화를 불문하고 다양한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다. 특히 현대인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나날이 복잡해지는 현대 사회로 인해 수많은 스트레스와 불안에 노출되어 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이들은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회피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는 경향을 보인다. 나는 산업화, 도시화된 현대 사회로 인해 야기되는 현대인의 부정적인 심리에 주목하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 자연을 이용하는 방식과 그 과정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나는 현대 사회에서 현대인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들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이러한 정서를 회복하기 위해 자연이 유의미한 심리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빠른 속도로 변화한 도시 환경은 우리 생활에 편리함과 풍족함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환경 파괴, 높은 실업률, 과도한 경쟁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 피로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 도시 안에서 사소한 순간에도 집중이 필요한 행위를 지속하고, 심리적으로 지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정신적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 문제까지도 유발될 수 있다. 오래전부터 연구하고 활용되어온 산림치유의 긍정적 효과를 기반으로 하여, 실제로 나의 치유공간이 되었던 자연이라는 요소를 나의 작품에 접목시켰다. 이를 통해 나만의 관념적 치유공간을 형성하여 부정적 감정을 캔버스 위에 드러내고 해소하고자 한다.

나는 자연 요소 중 나무 표면 이미지를 활용해 다양한 관념적 공간을 시각화하여 표현한다. 외부 환경에 의해 생긴 꺾기 부분의 다양한 주름, 균열, 질감 등은 나무의 삶의 궤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내가 표면적으로 보고 있는 나무가 아닌 또 다른 대자연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했다. 그저 평범한 나무에서 나의 시선을 거치며 거대한 존재로 재탄생한 이미지를 통해 나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쏟아내며 치유되는 느낌을 받는다. 또한 나는 자연과 교감하며 현실에서 무겁게 다가왔던 일들을 가볍게 여길 수 있었고, 이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어졌다.

본론 1장에서 자연을 통해 인간이 얻는 심리적 효과에 대해 연구하고 자연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분석한다. 이어서 미술치료를 통해 얻는 효과에 대해서 서술한다. 2장에서는 작품의 조형적 표현 형식과 특징에 대하여 살펴본다. 자연의 요소 중 나무 표면 이미지를 선택한 이유와 이를 활용해 나만의 치유공간을 만들어낸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이후 나의 작업과 관련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비교 분석하여 내 작품 이미지와 공통점, 차이점에 대해 찾아낸다. 3장에서 작품 분석은 제작 순서대로 배치했으며 움벨트 시리즈 작품의 각 특징에 관해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움벨트 시리즈 작품에 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작품 제작 과정에서 발견한 새로운 연구 방향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작품 내용 연구

1)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심리적 효과

빠르게 변화한 현대 사회는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그 속에서 일어나는 환경문제, 높은 실업률, 끝없는 경쟁 등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로와 우울증, 스트레스, 불안의 원인이 되었다. 현대인은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다. 나 또한 지나친 경쟁, 서로를 과하게 비교하는 분위기 등 많은 문제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생활 소음이 가득한 도시 환경은 어렸을 때부터 청력이 예민해 소음에 취약했던 내가 스트레스를 느끼게 하는 요소 중 하나였다.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심리적 고통에 그치지 않고 피부질환, 어지럼증 등 신체적 고통으로도 이어져 건강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현대인들은 건강 증진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을 돌보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예를 들어 건강식품을 구매하거나 시간을 내 운동을 하고 의식적으로 취미 생활을 가지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듯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자가 처해있는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환경에서 버티기 위해 자기만의 회복 방법을 찾아내고자 노력한다.

회복을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완화시키는 의학적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약물에 의존하는 방법은 내성으로 인해 그

한계가 분명하다. 자연 속에서 병을 고치려고 한 과거 동양의 의학과 숲 속에는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다고 제시한 히포크라테스의 말에 근거하여 사람들이 찾아낸 치유의 방법 중 하나는 자연이었다.¹⁾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산림치유는 숲의 소리, 냄새, 산소와 빛과 같은 숲의 환경 요소를 활용하여 사람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치유 활동이다.²⁾ 이러한 자연 치유 활동이 우리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Roger Ulrich(1945~)는 연구를 통해 자연 풍경을 바라보는 것으로 스트레스의 영향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는 창 밖 너머로 나무들이 보이는 입원실의 환자와 벽돌이 보이는 입원실의 환자들의 수술 후 회복 상태를 비교했다. 그 결과 수술 후 벽돌로 막혀있는 풍경을 본 환자들은 회복 속도가 더딘 반면 자연경관을 바라본 환자들은 합병증이 감소하고 회복 속도가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또 다른 연구(Parsons et al.,1998)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참여자들에게 자연 풍경이 담긴 영상과 도시 풍경이 담긴 영상을 시청하게 하였다. 이때 자연 풍경 영상을 본 참여자들은 스트레스의 지표를 나타내는 혈압, 근수축 등 신체적 변화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반대로 도시 풍경의 영상은 회복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³⁾ 이를 통해 자연이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사람의 정신적, 신체적 회복에 효과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본주의의 성장과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급격히 변화된 도시는 현대인에게 피로를 유발하는 물리적인 외부 자극 요소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인

1) 박범진, 「「숲」 스트레스에 지친 현대인을 위한 안식처」, 숲과 문화, 2005, pp.55-56

2) 네이버 지식백과, 산림치유(forest therapy),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74835&cid=62841&categoryId=62841>

3) Bell, Paul A, 이진환, 홍기원 역, 「환경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04.02.25.), p.33

간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발전된 운송 수단에서 발생하는 소음, 대기오염 등 다양한 외부 요소로 인해 쉽게 주의력 결핍과 피로에 노출된다. 또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의식적으로 집중이 필요한 행위를 지속해오고 있다. 이른바, 의도된 집중(directed attention)⁴⁾이라 하며 이러한 의도된 집중은 일상적이고 사소한 행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운전 중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주행 신호를 확인하는 행위는 운전자에게 면밀한 집중을 요구한다.⁵⁾ 이처럼 생활 속 매 순간에 의식적인 행동을 지속하면 피로감을 느끼기 쉽고 개인 능력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몸과 정신을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주의 회복 이론(ART)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회복이 가능한 장소가 자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심리학자 Kaplan(1942~2018)은 주의회복이론(Attention Restorative Theory; ART)을 통해 자연환경이 감소된 주의력을 회복시키기에 이상적인 장소임을 주장한다.⁶⁾ 그의 연구는 바쁜 현대 사회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주의력을 회복시키는 시간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자연 풍경은 도시 풍경과 다르게 교통수단 소음과 같은 외부 자극 요소가 적다. 자연이 제공하는 새소리와 아름다운 경관은 내가 의도적으로 애쓰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두게 된다.⁷⁾ 자연 속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은 잠시 잊고 숲을 이루는 환경 요소를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

이처럼 자연을 통한 회복에 대한 연구와 시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

4) 인지심리학에서 노력이 필요한 과제에 집중하는 능력을 뜻한다.

5) 산림교육치유포, 「쉽게 읽는 산림치유」, 산림청, 2022, p.17

6) Stanley T. Aash, 「Environment and Behavior」 51권, 『SAGE Publications』, p.1056

7) 산림교육치유포, 「쉽게 읽는 산림치유」, 산림청, 2022, pp.17-18

되고 있다. 나의 경우에도 자연 공간으로 들어가는 순간에는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하는 요소들로부터 순간 벗어날 수 있어 해방감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다. 피로와 스트레스, 불안 등 부정적인 감정들은 일상 생활에서 유발되기 때문에 생활반경에서 벗어난 곳, 도시의 소음이 들리지 않고 조용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나의 회복 장소가 되었다. 도시화로 인해 발생한 외부 자극 요인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나는 잠시 자연으로 떠나는 휴식의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우리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2) 자연에 대한 미술계의 가치관 변화

오래전부터 문학,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는 자연을 작품 제작을 위한 주요 소재로 자유롭게 사용해왔다. 문명은 기본적으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다. 동양에서의 자연은 인간에게 이로운 영향을 주고 생업과 생활 환경조건을 충족시켜 주어 찬양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한 이유로 자연은 인간과 융화되는 존재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고대부터 중세시대까지 인간의 이성에 대한 과한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행위를 당연시했으며, 자연과 인간을 분리해서 바라보았다. 자연의 수혜에 의지한 동양과 달리 해양으로 떠나 자유롭게 돌아다녔던 서양인들은 자연에 대한 존경심을 버리고 자연에 대해 지배적인 태도를 보였다.⁸⁾ 초기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신’을 모방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으며 신앙에 몰두하였다. 이후 중세를 지나면서 경외하던 ‘신’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변화하며 자연을 인간과 나란히 놓았으나 여전히 자연을 인간을 위한 존재로 보며 지

8) 정수일, 「실�크로드 사진」, (창비, 2013.11.04.), pp.124-128

배의 대상으로 여겼다.⁹⁾

역사적, 종교적으로 배경 혹은 보조적인 역할로 사용되었던 풍경화는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하나의 장르로서 나타났다. 이후 17세기에 풍경화는 네덜란드 화가 자콥 반 루이스달(Jacob van Ruisdael, c. 1628~1682)에 의해 회화 장르로 완전히 독립 및 정착했다. 그는 작품에 자연과 인간을 그저 똑같이 재현하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담아 그리기 시작했다.¹⁰⁾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낭만주의가 하나의 예술로 등장했는데, 이 분야의 작품은 자연을 대상으로 한 그림이 주를 이루었다. 당시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 사람들이 급변하는 도시화를 겪었고 혼란스러운 도시와 대비되는 평온한 자연을 동경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연을 지배대상으로 보던 이전과 다르게 자연에 경외심을 가지고 숭고한 대상으로 그렸다. 윌리엄 해즐릿(William Hazlitt, 1778~1830)은 낭만주의 본능 안에 현실도피가 잠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상의 표출이 기존 세계에 안주하고 있는 것보다 나은 것이라 주장했다. 이는 과거로부터의 도피,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한 성찰, 환상으로의 도피, 예전의 사회와 종교로부터의 도피이기도 했다.¹¹⁾ 그리스, 로마 시대 이후 사라진 예술 양식을 복구시키려는 행위에 집중한 르네상스와는 반대로 낭만주의자들은 새로운 창조적인 활동을 내면의 세계에서 찾기 시작했고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풍경화에 간접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자기표현 수단으로 사용했다.

이렇듯 낭만주의 화가들은 자연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이고 창의적

9) 이주영, 남영숙, 「서양 미술에 나타난 자연관의 변화」, 『한국환경교육학회』, 2006, p.140

10) 김소희, 「서양미술 속의 자연: 16~17세기 네덜란드의 풍경화에 재현된 자연」, 『더원미술세계』, 제 322호, 2011, pp.67-69

11) 데이비드 블레이니 브라운, 강주현 역, 「낭만주의」, (한길아트, 2004.11.15.), pp.9-14

인 세계를 표현해왔다. 개인의 감정과 상상력을 작품 안에 반영하였던 것으로 보아 작가의 정신적 측면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작품을 제작할 때 대상을 그대로 재현하여 옮기는 행위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치유 장소인 자연에 대해 회화적인 방식을 사용하여 나만의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자 한다.

3) 미술치료와 고통의 예술적 승화

나는 도시 환경의 외부 자극으로 인해 생긴 정신적, 신체적 질환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치유 방법으로 비약물 치료 방식에 주목했다. 치료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약물 치료 방법은 사람마다 효과가 다르고 잇따라 오는 부작용의 종류가 상이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심리학과 의학 분야에서는 증상 완화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며 약물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명상과 같은 비약물 치료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 중 치유에 미술을 접목시켜 활용한 마음챙김 기반 미술치료(Mindfulness-Based Art Therapy; MBAT)는 환자가 미술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내면을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MBAT는 환자가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게 하고,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통해 비논리적 사고들을 미술 안에 담아내게 한다. 이 치료법은 언어적 표현으로 내면을 드러내기 어려울 때 좋은 수단으로 사용된다. 추상적인 감정을 예술을 통하여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얻는 자기 인식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태도를 자각하고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자기 내면을 솔직하게 인식하고 드러냈을 때, 환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되고 이는 곧 치료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환자는 그림에 자신의 경험을 담아 타인에게 드러냄과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겪는다.¹²⁾

이처럼 미술은 개인의 삶과 경험들을 시각적으로 구현해내고, 개인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세계 속에서 진실된 감정을 보여준다.¹³⁾ 미술치료는 환자가 자신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보상 회로가 촉진되는 경험을 하게 만들고 감정의 균형을 유지시킨다. 또한 감정 조절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작업의 완성을 통해 환자가 만족감을 얻으면 이는 곧 심리적 완화로 이어진다.¹⁴⁾ 나는 이러한 미술치료의 효용성과 자연에서 얻는 심리 효과를 접목시키고자 했다. 자연의 요소인 나무 이미지에 개인적인 정서를 담은 그림을 통해 내가 느낀 감정들을 서술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2. 작품 조형 연구

1) 나무 표면 이미지를 통한 내면 표현

우리나라의 자연치유는 국토 면적의 64%가 숲 지형임을 활용하여 시행되었다.¹⁵⁾ 이때 나무들이 우거진 장소를 숲이라 지칭한다. 그만큼 나무는 우리에게 이로운 영향을 주며 우리 삶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또한 나는 유년 시절의 집 근처 뒷산에 산책로가 조성되어있어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곳을 걷곤 했다. 나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떨쳐내고 정서적 치유가 된 자연 중, 하나의 요소인 나무를 작품 제작을 위한 핵심 소재로 삼았

12) 조정은, 구지영, 김태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마음챙김 기반 미술치료(MBAT)에 대한 인식 연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 23권, 제 10호, 2023, pp.562-570

13) 이디스 크레이머, 김현희, 이동영 역, 「치료로서의 미술」, (시그마프레스, 2007.06.10.), p.41

14) Noah Hass-Cohen, Joanna Clyde Findlay, 김갑숙, 정은주, 김태희 역, 「미술치료와 신경과학」, (학지사, 2018.10.30.), p.33

15) 박범진, 「산림휴양활동을 이용한 숲치유의 실험적 접근 : 경관감상과 산책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p.2

다. 화면 안에서 대상의 색은 나무 형상에 집중하기 위해 단순화시켰다. 표면의 여러 가지 색깔의 변화보다는 흔적에 초점을 맞췄기에 색의 단순화가 대상 표현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대비가 강한 어두운색과 흰색이 한 화면에서 어우러지면서, 단색 안에서도 다양한 톤을 끌어내어 시선의 방향을 자연스럽게 잔잔한 톤의 변화에서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추상화된 나무 표면으로 가도록 하였다. 나무의 수명은 인간의 수명을 훨씬 뛰어넘는다. 그리고 삶의 흔적이 외부 표면에 축적되어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 긴 삶의 여정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육안으로 세밀하게 나무 표면을 관찰하여 나무 이미지를 캔버스에 표현하였다.



[도판 1] 에디 로돌포 아파리시오, <The Ceiba Saved Me>, 309.9x218.4x14.6cm, cast rubber with ficus tree surface residues on found cloth, glazed stoneware, twine and wooden support, 2020

나와 마찬가지로 나무 표면을 다룬 작가 에디 로돌포 아파리시오(Eddie Rodolfo Aparicio, 1990~)는 소외되고 비난받는 중앙아메리카 이민자 사회의 문화적, 과학적 지식에 대해 얘기한다. 그는 자신의 가족 문화에서 물려받은 고무 소재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엘살바도르의 토착문화와도 연결되어있다. 그는 작품을 통해 관람자로 하여금 고무의 유래를 연상하게 만들고 이주민 공동체들의 토지와 장소의 연결을 작품을 통해 구체화하고자 했다. 나무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자료를 수집한 나와 달리, 그는 LA 지역 안에서 자라는 라틴계 나무의 표면에 집중했다. 무화과나무로 알려진 피쿠스(ficus)는 열대지방 전역에 서식하는 종이다.¹⁶⁾ 이 나무는 5~60년대에 LA로 들여졌고 수만 그루의 나무가 도시 곳곳에 심어졌다. 이때 그는 피쿠스 나무의 이동을 보며 동시대 이민 현상을 떠올렸고, 이 나무를 이민 공동체들의 대변자로 바라보았다.¹⁷⁾ [도판 1]의 작품은 그저 나무의 표면을 옮겨놓아 자연을 기록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는 이 나무껍질로 재료의 물질성, 더 나아가 물질의 역사까지 보여주려 하였다. 그는 고무, 황, 나무 접착제, 천, 아크릴, 라텍스, 페인트와 같이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설치 작품을 제작했는데 특히 나무와 나무껍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에디 로돌포 아파리시오는 나무에서 추출할 수 있는 소재와 물질의 종류,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 전시장에 나무 본연의 형태를 그대로 옮겨와 관람자가 실제 나무 표면을 감상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나의 작품에서는 나의 개인적인 고민과 감정들이 나무 표면 이미지와 결합하여 기존의 화면과 또 다른 자연 이미지로 재창조된다.

16) 위키백과, 피쿠스 나무 (ficus tree), <https://en.wikipedia.org/wiki/Ficus>

17)MOCA, 「MOCA Focus: Eddie Rodolfo Aparicio」, (MOCA Focus, 2023.11.12.)
<https://www.moca.org/exhibition/moca-focus-eddie-rodolfo-aporicio>

2) 나무 이미지의 불확실성

나는 나무 외형에 변주를 주기 위해 나무 이미지를 확대하고 잘라내어 부분만 사용함으로써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면의 공간 이미지로 제작했다. 이미지의 사실적 재현보다는 선택한 이미지를 추상화시켜 또 하나의 자연 이미지로 나의 내면의 고민, 우울, 불안을 쏟아내기 위한 공간으로 형상화하였다. 이때 이미지를 거대한 자연과 같이 느껴지도록 디지털 편집 프로그램인 포토샵으로 부분을 확대하고 상공에서 바라보는 듯한 시점을 접목하여 광활한 느낌의 화면효과를 주는 동시에, 화면 안에 이미지를 빈틈없이 채웠다.



[도판 2] 이기봉, <Where You Stand D-1>, 186x186cm, acrylic and polyester fiber on canvas, 2022

한국의 작가 이기봉(1957~)의 작품은 나의 작품과 동일하게 나무를 소재로 사용하였으나 화면 구성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도판 2]는 흐릿한 화면 안에 전경, 중경, 후경이 나누어져 있다. 원시의 바다를 근원으로 한 지구상의 생명체는 지구환경 안에서 물을 매개로 하여 발생하고 성장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습기에 대해 애호의 태도를 가진다. 이기봉의 작품 속 자욱하게 낀 안개 풍경은 신비롭게 느껴지나 오늘날 현대 사회의 안개는 공해를 떠올리게 하는 요소이다. 이기봉은 플렉시 글라스(plexi glass)¹⁸⁾나 폴리에스테르 섬유(polyester fiber)¹⁹⁾를 캔버스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배치해 안개를 표현했다.²⁰⁾ 나의 작품은 화면 안 대상 간에 거리감을 주는 일반적인 풍경화 구도에서 벗어나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장된 이미지로 나무라는 요소를 불명확하게 드러냈다. 반면 이기봉은 캔버스 위에 특정 재료를 사용해 나무 이미지를 흐릿하게 만들어 대상의 불확실성에 대한 표현을 보여준다.

3) 자연을 이용한 관념적 치유공간 표현

철학자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는 인간이 사회와 자연을 이분법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과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던 인간은 사라지고 경쟁이 난무한 제도화된 사회에 얽매어있는 삶을 산다고 얘기한다. 그는 인간의 자유는 본래 순수한 자연에 있다고 얘기하며 ‘자연으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인간과 자유, 자연의 관계를 강조했다.²¹⁾ 낭만주의 이전 예술가들은 고대 그리스, 로마 예술로부터

18) 플렉시 글라스: 유리처럼 투명한 특수 아크릴 합성소지이며 반짝거리고 투명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19) 폴리에스테르 섬유: 테레프탈산과 에틸렌글리콜의 축합중합체와 같은 폴리에스테를 방사하여 얻는 합성섬유.

20) 이선영, 「모호한 풍경:유근택展 2022. 11. 8~1. 15 대구미술관_이기봉展 2022. 11. 17~12. 31 국제갤러리 서울, 부산」, 『아트인컬처』, 제 2월호, 2023, pp.44-47

이어져 온 관습을 준수하고 모방을 중요시하며 재현적 행위를 이어왔다. 그러나 19세기 문화인 낭만주의 예술은 이성보다는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개인의 해석과 개성을 존중했다. 영감의 원천이 되는 작가 자신의 상상력을 강조하고, 자연을 탐구의 대상으로 여기며 주관적인 태도로 바라보았다.²²⁾ 개인이 사유하고 느끼는 내면의 감정을 외부로 표출하는 낭만주의 예술정신을 이용하여 나는 나만의 관념적 치유공간을 창조하고자 했다. 다양성을 인정한 낭만주의 시대에 활동한 작가들은 개인의 경험이 모두 다르기에 자연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다양했다. 예를 들어 시골의 풍경과 도시에 가려진 논밭을 그리는 화가, 멀리 떨어진 광활한 풍경을 그리는 화가, 풍경에 접목해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화가가 존재했다.²³⁾



[도판 3]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 <바닷가의 수도자>, 110x171.5cm, oil on canvas, 1809

21) 박인철, 「자연과 자유:루소와 실러의 비교를 중심으로」, 『철학연구회 학술발표논문집』, 2019, pp.73-75

22) 데이비드 블레이니 브라운, 강주현 역, 「낭만주의」, (한길아트, 2004.11.15.), p.29

23) 데이비드 블레이니 브라운, 강주현 역, 「낭만주의」, (한길아트, 2004.11.15.), p.132

대표적인 낭만주의 화가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Caspar David Friedrich, 1774~1840)는 그의 예술관 안에 종교적인 신념이 있었고, 자신만의 세계에 몰입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는 인간실존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인간의 일생을 순환하는 계절의 변화에 비유했다. 프리드리히는 자신이 해석한 세상을 자연을 소재로 활용해 표현했으며 회화는 인간과 자연을 연결하는 매개체라 주장했다.²⁴⁾ [도판 3]은 텅 빈 채 광활하게 펼쳐진 하늘과 짙은 녹색으로 묘사된 바다가 주를 이룬다. 이때 관람자들의 시선이 주제로 향하게 하는 전통적 묘사 방법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무한한 풍경이 펼쳐져 있는 효과를 자아낸다. 파격적인 구도를 통해 자연의 숭고함과 작가가 담은 다양한 감정들을 관람자가 경험하게 만들고 몰입시킨다.²⁵⁾

이처럼 프리드리히의 작품은 자연이라는 소재로 내면세계를 시각화하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아 전달하려는 점이 내 작품 의도와 유사하다. 나는 더 나아가 이미지를 추상화시켜 생성한 작품 속 공간에 개인적인 내면과 이야기들을 드러내고, 이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마음의 치유까지 하고자 한다.

24) 데이비드 블레이니 브라운, 강주현 역, 「낭만주의」, (한길아트, 2004.11.15.), pp.140-141

25) THE ART STORY, 『Caspar David Friedrich 아티스트 개요 및 분석』, (THE ART STORY, 2017.07.14.) <https://www.theartstory.org/artist/friedrich-caspar-david/>

3. 작품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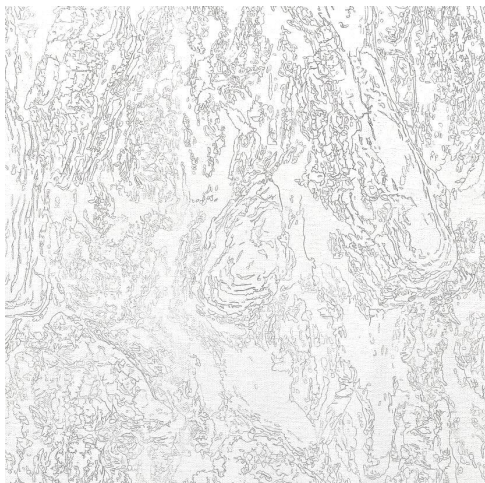


[작품 1] 움벨트_윤슬, oil on canvas, 117x50cm,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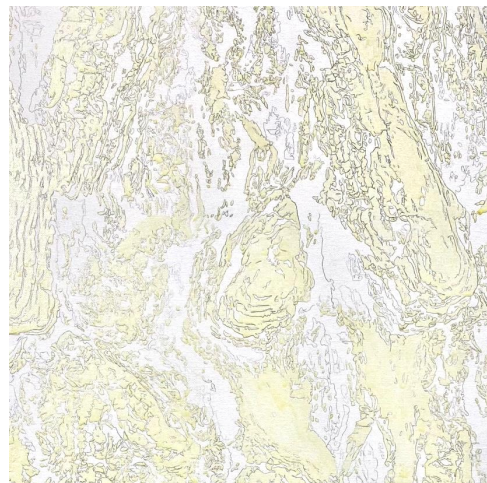
[작품 2] 움벨트_아지랑이, oil on canvas, 117x50cm, 2023

[작품 1]은 ‘움벨트_’ 시리즈의 첫 번째 작업이다. 초기 작품의 경우에는 숲속의 나무를 근접 촬영하여 나무의 전체모습보다는 나무껍질 표면에 새겨진 오랜 시간의 흔적들을 카메라로 포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작업을 진행했다. 캔버스를 폭이 좁고 높이가 긴 모양으로 제작하여 나무라는 요소를 강조하였다. 형태와 마찬가지로 이미지 또한 큰 왜곡 없이 나무 용이를 그대로 재현했다. 용이를 중심으로 멀어지는 거리에 따라 묘사의 정도가 단계적으로 열어지게 했다. 용이의 중심부는 나무 표면 균열과 나무껍질로 인해 생긴 그림자까지 자세히 묘사했다. 그에 비해 외곽 부분은 가법

게 그려냈다. 오랜 시간을 살아온 나무는 그 흔적을 표면에 거짓 없이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나무의 삶의 흔적을 큰 변화 없이 재현하는 순간이 나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외부 공간에 노출되어 계속되는 환경적 변화에 곳곳이 적응하며 자기 자리에서 반듯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무의 모습을 바라보며,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 안에 발생하는 힘든 일들을 떠올렸다. 이를 통해 나 또한 굳건히 버티는 마음을 가진 채 삶을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도록 다짐하게 되었다.



[도판 4] <작품 2>의 스케치



[도판 5] <작품 2>의 마스크 단계

모든 ‘움벨트_’ 시리즈는 유화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화면의 일부분을 마스크액으로 막는다. 이때 마스크액을 막는 범위는 작품마다 차이가 있다. 흰색 유화 물감을 캔버스 화면에 쌓아 올려 특정 부분을 밝히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나는 캔버스의 흰 부분을 마스크액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의도적으로 마스크액을 칠한 공간은 물감의 침투로부터 보호되고 캔버스 본연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마스크액을 섬세하게 칠하고 건조 후 다시 제거하는 행위는 불필요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들은 짙은 색을 통해서, 해소되고 극복되는 모습은 마스킹액을 캔버스 화면에서 걷어내는 행위를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작품 1]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모습을 형상화하기 위해 마스킹액을 소량으로 사용하여 자잘한 형태로 타고 올라가 서서히 퍼지는 것처럼 표현했다. [작품 2]는 [작품 1]과 동일한 캔버스 규격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작품 2]는 고유의 캔버스 면이 50% 이상 드러나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선을 화면의 한 곳에 집중시키는 것이 아닌 전체적으로 퍼지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안개 혹은 아지랑이로 보이는 이미지를 사용해 나의 소용돌이 치는 감정들을 강조하였다. 마스킹액이 뜯긴 자리에 거친 붓 자국이 드러나도록 하여 붓 모가 가진 물성을 표현하고 형태의 입체감을 주었다.



[작품 3] 움벨트_파도 1, oil on canvas, 162.2x130.3cm, 2023

[작품 3]은 움벨트 파도 시리즈의 첫 번째 작업이다. 이전 작업과는 다르게 한눈에 나무처럼 보이는 긴 형태의 캔버스가 아닌 일반적으로 인물화를 그릴 때 주로 사용하는 F형 캔버스 규격을 사용함으로써 그린 대상이 무엇인지 추측하도록 했다. 작품 제작을 위해 사용한 사진 이미지는 전반적으로 납작하고 요철이 있는 나무 표면 중에서도 좀 더 입체감이 있으며 불규칙한 패턴들이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커다란 캔버스 화면에 상공에서 관망하는 듯한 시점을 사용하여 작품과 관람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

게 만들었고, 이를 통해 관람자가 다른 자연을 떠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나는 강렬한 빛의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작업 초기 스케치 단계에서 올렸던 마스킹액을 제거하여 밝은 면을 드러냈다. 마스킹액을 뜯어낸 일부에만 붓이 지나간 흔적을 남기고 대부분은 캔버스의 고유 면이 드러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람 손을 타지 않은 순수한 자연의 특징을 작가의 손이 닿지 않은 캔버스 고유 면에 비유하여 표현했다. [작품 3]에서 흰 면들이 응집되고 흐르는 것 같은 이미지는 털어놓은 고민이 해소되고 흘러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흐르는 물의 표현은 유화 물감과 페인팅 오일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톤을 조절하고 붓질을 통해 곡선적인 효과를 강조함으로써 보여주고자 했다. 흘러내리는 듯한 동적인 형태가 관람자의 상상력을 통해 빠르게 혹은 느리게 다양한 속도로 변화하는 느낌을 이끌어 내려 하였다.

평면적인 캔버스 안에 깊은 공간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어둡고 짙은 색을 선택해 새로운 풍경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했다. [작품 3]에서는 중간톤을 풍부하게 사용하고 흰 부분을 사방으로 균일하게 배치하여 캔버스 한 곳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닌 화면 전체로 분산시켜 공간의 확대 효과를 의도하였다.



[작품 4] 움벨트_파도 2, oil on canvas, 162.2x130.3cm, 2023

[작품 4]는 ‘움벨트 파도 시리즈’의 두 번째 작업이다. [작품 3]과 마찬가지로 인물형 100호 캔버스를 선택했으며 [작품 3]과 동일한 나무의 이미지를 사용했다. 그러나 중간톤 범위의 비율을 줄여 [작품 3]보다 캔버스의 흰 면과 짙은 색의 색상 대비 효과를 강하게 보여준다. 같은 나무 이미지이지만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햇빛으로 인해 나무 형태에 차이가 생겨 이미지의 분위기에 변화를 준다. 환경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나의 심리상태에 따라서도 똑같은 균열과 흔적들이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보이곤 한다.

더욱 복잡한 감정을 가졌을 때 보았던 [작품 4]는 [작품 3]보다 어두워진 분위기와 흰 면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 흐르는 이미지를 제시한다. 마스크액을 제거한 부분에 의식적으로 붓 터치를 수직 방향으로 사용하여 화면을 구상하는 요소들이 하강하는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중간톤과 맞닿는 부분에 흰 면을 많이 남긴 이전 작업과 다르게 [작품 4]에서는 주로 어둡게 칠한 면에 작은 기포 형태로 마스크액을 올려 작업했다. 흰 면 주위로 연결해주는 톤이 없어 어두운 배경색과 극명한 대비를 이뤄, 마치 파도에 의해 포말의 일부분이 강한 유속으로 흘러 분산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 사소하고 똑같은 고민들이 해결되지 않고 나의 머릿속에 계속 흐르며 머물고 있는 현실을 표현하고자 했다.



[작품 5] 옴벨트_폭포, oil on canvas, 145.5x112.1cm, 2023

[작품 5]는 [작품 4]에서 사용한 수직적인 형태를 더욱 강조했다. 캔버스의 흰 면을 화면 양쪽으로 배치하고 중앙은 물감의 양을 적게 사용해 밝은 푸른색을 드러냈다. 그 위에 일자로 떨어지는 선들, 매끄럽게 흐르는 듯한 느낌의 붓터치를 사용하여 밝은 면 안에서도 깊이에 따라 명도가 달리 보이게 만들어 물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예술은 근본적으로 자연이라는 객관적인 대상을 소재로 삼아왔다고 볼 수 있다. 물의 기를 수맥(水脈)²⁶⁾

등으로 부르며 자연을 인간의 안식처로 보았고 하늘과 땅보다 산과 물을 그림 속에 주로 배치했다.²⁷⁾ 이러한 자연관을 기반으로 나 또한 물을 소재로 활용해보았다. 이전 작업들에 비해 캔버스의 흰 면에 자잘한 붓터치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물감 선들이 활동적인 느낌을 주고 흰 면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하였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경쟁 구도에 휩싸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런 상황 때문에 많은 현대인들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는다. 나 또한 불안에 사로잡히는 상황을 피할 수 없었고 그때마다 나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기보다 불안한 감정이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까지 두고는 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사라진 불안은 어느 순간 삶에 다시 비집고 들어왔다. 불안한 상황이 끝없이 쏟아지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흐르는 폭포와 유사한 이미지를 선택했다.

26) 수맥(水脈):지하에서 좁은 지층을 따라 맥상으로 존재하는 지하수

27) 이현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 18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12.30.), p.905



[작품 6] 움벨트_빙하, oil on canvas, 145.5x112,1cm, 2023

[작품 6]은 중간톤들 사이에서 미묘한 색감 차이들이 질서 없이 얽혀있도록 구성하였다. 화면 전체가 마치 얼음이 융해되는 모습, 혹은 정반대인 응고되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비되는 현상을 한 화면에서 보여준다. 이는 작품을 통해 이중적인 나의 태도를 형상화하고 자아 성찰을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때 인간의 극단적인 양면성이 아닌 타인과 본인에게 대하는 태도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불가피하게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평가를 받는다. 그러한 사회

속에서 나는 늘 긴장하고 불안에 사로잡힌다. 이때 나는 스스로에게는 높은 기준점을 두고 평가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남에게는 관대한 기준점을 두며 아주 사소한 부분에도 좋은 평가를 내린다. 동시에 같은 일을 진행하고 동일한 결과값을 낸 상황에, 나는 타인에게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진행 과정에 대해 칭찬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작품 6]에서 중간톤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흰 면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이러한 감정의 원인이 되는 스스로의 행동 습관과 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작품 7] 움벨트_설산, oil on canvas, 145.5x112.1cm, 2023

[작품 7]은 지금까지의 ‘움벨트_’ 시리즈 중 화면 내 색상 대비 효과에 가장 집중한 작업이다. 중간톤이 완전히 제거되어 짙은 색과 캔버스의 흰 면, 오로지 명암의 대비에 초점을 맞춘 작업이다. 화면을 균일하게 가득 채운 흰 면은 특정 부분을 강조하지 않으면서 평면적인 효과를 준다. 이전 부터 산은 하늘과 가까이 있어 인간과 하늘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여겨지기도 했으며 풍수지리설에 따르면 산이 존재하는 곳은 좋은 터로 인식되었다.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도 쉽게 변하지 않는 산을 동경하며 신성한 대상

으로 여겼고, 심신의 안식을 찾는 공간이자 힘든 현실에서 도피하는 공간으로 여겼다.²⁸⁾ 멀리서 산을 바라보면 지형의 높낮이 차이로 인해 뾰뾰하게 심어진 나무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 모습이 나무 표면에 생겨난 이끼의 형상과 유사해 보여 편집을 통해 눈이 쌓인 산 같은 거대한 대상으로 형상화했다.

마스킹액을 활용하여 만든 흰색의 작은 형태들을 캔버스의 어두운 면에 소복이 쌓인 눈처럼 표현했다. 이는 이미 수많은 고민을 떠안아 어두워진 공간을 위로해 주듯 깨끗한 면이 점점 퍼져나가고 흩뿌려져 마음을 비워주는 모습을 의도한 것이다. 실제로 눈이 지면으로 떨어질 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을 덮어버린다. 이처럼 언젠가 캔버스의 흰 면이 어두운 면 위로 쌓여 결국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것만 같은 느낌을 주고자 했다.

28) 이현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 18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12.30.), pp.902-906

III. 결 론

본 논문은 현대 사회에서 현대인에게 발생하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자연을 통해 치유하는 과정에 대해 서술하였다. 다양한 치유 방법 중에서도 산림치유 이론을 연구하고, 이를 미술치료의 효능과 접목시켜 스스로 느끼는 정신적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나무 표면 이미지를 활용해 나의 감정을 표현한 작품에 대해 분석하였다. 자연이 인간의 정신과 신체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미술사를 살펴보았을 때 자연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시대를 거듭하며 기술이 발전하여 우리의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의료기술 또한 크게 발달해 과거에 비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길어져 100세 시대가 된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추세이다. 이때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건강도 매우 중요하다. 상담과 의학의 도움으로 정신적 고통을 감소시킬 수는 있으나, 나는 경제적 부담이 덜하고 장기적으로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통한 치유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대인들이 자연을 통해 치유 받고 스트레스가 감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연구 결과를 접했다. 이는 나 또한 도시에서 받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자연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며 치유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작품을 통해 자연환경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내면세

계를 접목시켜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여 표현했다. 자연 요소 중 나무 표피의 형태를 주제로 하여 화면 안에서 변형시켜 다양한 이미지가 보이도록 하였다. 단순히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 아닌 나의 감정을 담아 본인만의 관념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 자유로운 공간을 시각화한다. 이 과정에서 나의 개인적인 감정이 표출되고 해소된다. 관람자 또한 나의 작품을 바라보고 각자 자신만의 관념적 치유공간 혹은 그 밖에 치유되는 행위를 찾아내어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에게 있어서 예술은 개인의 경험과 생각, 감정을 외부로 드러내기 위해 특정 대상을 선택하여 관찰하고 정신적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때 선택된 물질적 대상에 대해 개인의 경험에 따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에 표현하고자 하는 작품안의 내적 의미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더불어 나는 본 논문에서 연구한 내용을 기반으로 내면 표현 방법에 대해 지속적인 고찰을 할 것이며, 내가 선택한 조형 이미지와 색의 의미들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앞으로의 작품에서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김소희, 「서양미술 속의 자연: 16~17세기 네덜란드의 풍경화에 재현된 자연」, 『더원미술세계』, 제 322호, 2011

네이버 지식백과, 산림치유(forest therapy),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74835&cid=62841&categoryId=62841>

네이버 지식백과, 수맥(水脈),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94016&cid=60289&categoryId=60289>

두산백과, 폴리에스테르 섬유(polyester fiber),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58693&cid=40942&categoryId=32091>

데이비드 블레이니 브라운, 강주현 역, 「낭만주의」, (한길아트, 2004.11.15.)

박범진, 「「숲」 스트레스에 지친 현대인을 위한 안식처」, 숲과 문화, 2005

박범진, 「산림휴양활동을 이용한 숲치유의 실험적 접근 : 경관감상과

산책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박인철, 「자연과 자유:루소와 실러의 비교를 중심으로」, 『철학연구회 학술발표논문집』, 2019

산림교육치유과, 「쉽게 읽는 산림치유」, 산림청, 2022

이디스 크레이머, 김현희, 이동영 역, 「치료로서의 미술」, (시그마프레스, 2007.06.10.)

이선영, 「모호한 풍경:유근택展 2022. 11. 8~1. 15 대구미술관_이기봉展 2022. 11. 17~12. 31 국제갤러리 서울, 부산」, 『아트인컬처』, 제2월호, 2023

이주영, 남영숙, 「서양 미술에 나타난 자연관의 변화」, 『한국환경교육학회』, 2006

이현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 18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12.30.)

위키백과, 피쿠스 나무 (ficus tree), <https://en.wikipedia.org/wiki/Ficus>

워드로우(WORDROW), 플렉시 글라스(plexi glass),
<https://wordrow.kr/%EC%9E%90%EC%84%B8%ED%95%9C-%EC%9D%98%EB%AF%B8/%ED%94%8C%EB%A0%89%EC%8B%9C%20%E>

A%B8%80%EB%9D%BC%EC%8A%A4/1/amp/

조정은, 구지영, 김태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마음챙김 기반 미술치료 (MBAT)에 대한 인식 연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 학회논문지』, 제 23권, 제 10호, 2023

정수일, 「실크로드 사전」, (창비, 2013.11.04.)

Bell, Paul A, 이진환, 홍기원 역, 「환경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04.02.25.)

MOCA, 「MOCA Focus: Eddie Rodolfo Aparicio」, (MOCA Focus, 2023.11.12.)

<https://www.moca.org/exhibition/moca-focus-eddie-rodolfo-aporicio>

Noah Hass-Cohen, Joanna Clyde Findlay, 김갑숙, 정은주, 김태희 역, 「미술치료와 신경과학」, (학지사, 2018.10.30.)

Stanley T. Aash, 「Environment and Behavior」 51권, 『SAGE Publications』

THE ART STORY, 「Caspar David Friedrich 아티스트 개요 및 분석」, (THE ART STORY, 2017.07.14.)

<https://www.theartstory.org/artist/friedrich-caspar-david/>

ABSTRACT

A Study on the Representation of Inner Healing Spaces Through Wood Surface Images – Focusing on my works –

Na Hyeon Kim
Dept. of Western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the content and formative aspects of my work, the ‘Umwelt_’ series, created from 2023 to 2024. In modern society, various problems such as environmental pollution, social alienation, and job shortage are emerging due to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s a result, modern people continuously experience mental and physical stress and pain, and they spare no effort in finding their own stress management methods to escape this pain. I also experienced stress from various issues in a society that values evaluation and competition. As someone who is vulnerable to stress, mentally weak, and has sensitive hearing, I reacted tensely to the cacophony that filled the city. Whenever this happened, I sought natural spaces with minimal external stimuli, like noise. Afterwards,

nature would always comfort my mind. I started working based on this healing memory. Instead of finding a way to relieve the stress in my daily life, I aimed to create my own healing space through a pictorial approach. On the canvas, I depict a haven that escapes the mental and physical pain prevalent in modern society.

Mental and physical healing activities using nature have been ongoing since the past to the present. The natural environment has also been used as spaces of relaxation and healing, and in the field of art, it has been used as a means to express and convey the inner feelings of humans. Because nature is a familiar presence to me mentally as a space for psychological healing, I wanted to create my own pictorial space based on these aspects and express it as artwork. Natural therapy is conducted by utilizing the forest's terrain, an environment made of trees. Since trees are closely related to our lives and are beneficial to us, as one of the elements that make us nature, trees are the primary subject in my work. In addition, I represented the forest as a microcosm of modern society and compared trees to modern people. I observed the surface of a tree containing traces of time through its history. With photography and editing, I then created a new image and drew this with oil paint on the canva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study the works of the 'Umwelt' series. Umwelt is a semiotic theoretical term that

means the surrounding environment. 'Welt' means the world and 'um' means surrounding. 'Welt' is an objective world, but it meets 'um' and changes. 'Umwelt' is an egocentric and sensory world that individuals perceive subjectively. Since I also recreated the tree's surface by looking at it with a subjective gaze, I thought this term would suit the title of my work. The image of the tree's surface is partially cut and enlarged to create an abstract image so that it cannot be recognized as a tree at first glance. All the pieces of my work were painted in one color, and after the oil paint completely dried, the masking liquid that was initially applied was finally removed. As a result, the actions and pain layers that accumulated on part of the canvas return to their original state, revealing the unique texture of the canvas again.

Through this paper, I examine the causes of mental and physical pain in modern society and study the positive effects of nature on humans. Additionally, I aim to analyze my work as a space for my own mental healing using natural elements and studying methods of expression with the goal of achieving pictorial development.